

# ECONOMY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가공식품 물가 '들썩'...광주 2.3%·전남 3.0% ↑



“레미콘 성수기 안정적 공급 최선”  
광주조달청 민관공동수급협의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2일 광주·전남지역 관공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관공동수급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공공사 현장에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납품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등 주요 수요기관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 등 레미콘 생산업체가 참여해 중요공사 현장 결정, 우선납품에 관한 사항, 레미콘 수급 차질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우선납품제는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공사 현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중요공사현장에 대해서 우선 납품하는 제도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레미콘 수급 불안 시 신속히 대응해 관공레미콘의 수급안정화와 품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 7개월·14개월만 최고치 소비자물가 상승 부추겨 전국 평균은 3.6% 올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 소비자물가가 2% 안팎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4개월 만에 1%대로 하락전한 한 반면, 전남지역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오징어채, 맛김 등 가공식품 물가

가 크게 뛰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개월 만(12월 2.0%→1월 2.2%→2월 2.1%)에 1%대로 하락전환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는데, 식품은 2.6%, 식품이외는 1.7%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 대비 2.3% 뛰었다. 세부적으로 신

선식품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0.2% 하락했다.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 대비 5.6%, 1.1% 각 상승한 반면, 신선과실은 5.2% 떨어졌다.

배추가 54.6%로 가장 크게 올랐고, 굴과 고등어도 16.6%, 11.5% 상승했다. 지난달 전남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2% 올랐다.

3개월 연속(1월 2.3%→2월 2.2%) 2%대 상승률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는데, 식품은 2.8%, 식품이외는 2.3% 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0.2% 하락했다.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 대비 5.6%, 1.1% 각 상승한 반면, 신선과실은 5.2% 떨어졌다.

배추가 54.6%로 가장 크게 올랐고, 굴과 고등어도 16.6%, 11.5%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의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2.3%, 전남은 3.0%를 기록했다. 그간의 추이를 보면 광주는 지난해 8월(2.4%) 이후 7개월 만, 전남은 1년 2개월 만(지난해 1월 3.8%)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 지역 모두 오징어채(광주 46.0%, 전남 32.4%)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또 광주에서는 맛김(21.3%), 비스킷(16.4%), 초콜릿(14.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오징어채에 이어 시리얼(18.2%), 김치(16.0%), 초콜릿(13.7%)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년=100)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오르며 3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그렸다. 가공식품은 전달보다 0.7% 상승하고 전년 동월보다 3.6% 뛰었다. 송대우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아베다가 추천하는 쿨링 오일은 롤러를 형태로 목이나 피부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근육 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광주신세계 “쿨링 오일로 춘곤증 이겨내요”

#### 육각커피·비타민제품도 추천

(주)광주신세계가 춘곤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 추천에 나서 눈길을 끈다.

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춘곤증 등 졸음을 쫓을 수 있는 품목으로 본관 지하 1층 ‘육각커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입점 후 고객들은 물론 임직원들에게도 커피 맛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육각커피는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커피를 비롯해 고급 원두를 블렌딩해 선보이는 드립커피 등이 인기를 얻으며 커피

맛집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고무맛, 팥맛, 호두과자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관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아로마 케어 전문 브랜드 ‘아베다’에서 선보이는 쿨링 오일도 지친 일상에 활력을 되찾는 것을 도와준다.

아베다 쿨링 오일은 블루 케모마일과 페퍼민트 성분으로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춘곤증을 쫓는 것 이외에도 마사지를 하거나 긴장 완화, 근육이완이 필요할 때 소량만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학업이나 업무에 지친 학생과 직장인들이 춘곤증을 쫓기 위해 많이 찾는 제품

이다.

본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는 ‘비타민뱅크’가 활력 충전에 추천하는 제품은 패밀리 ‘츄어블 비타민c’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 브랜드 비타민뱅크에서 선보이는 패밀리 츄어블 비타민 c는 하루 한 알로 비타민 100mc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씹어 먹는 형태라 춘곤증이 찾아올 때 한 알씩 챙겨 먹을 수 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춘곤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광주신세계에서 육각커피와 비타민뱅크, 아베다 오일 등을 만나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활력을 선사할 다채로운 품목들을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우 기자 sdw0918@gwangnam.co.kr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맞춤형 전문케어 (치매, 파킨슨:간호사2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2:1:1)

✓ 촉탁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축 고급 실내** **음악(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릭 요양원** ☎ 062)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업소득증대! 쌀! 소비촉진!**

**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 발대**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영농지원...광주여대 학생들 참여

농협 광주본부는 2일 금곡마을에서 범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영농지원 총력 결의와 농촌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광주시와 북구, 광주여자대학교, 관내 농협 조합장 및 시너지협의회, 농협봉사단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체계를 위한 우리 농

산물 꾸러미 400세트를 전달하고, 광주여대 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행복농촌봉사단'은 앞서 지난달 광주여대와 농촌지원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농철인 이달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농촌봉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및 농촌봉사 참여를 통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는 올해 3만5000명의 농촌인력증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일자리 참여자와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 광주본부 또는 인력증가센터 운영농협인 대촌농협, 동곡농협, 평동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폭염 예고에 삼성전자 에어컨 생산 '풀가동'**

작년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AI 에어컨 수요 대응

삼성전자가 역대급 폭염 예보와 함께 물러드는 에어컨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광주사업장 내 AI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찾아온다는 전망에 따라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생산라인 풀가동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무풍 기능에 혁신 AI 기술을 접목해 에어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AI가전=삼성' 공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를 선보인 데 이어 같은 달 6일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을 공개하며 AI 에어컨 신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2025년형 신제품 전 모델은 AI 쾌적과 AI 절약모드 등을 탑재해 소비자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와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하는 '쾌적제습'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출시를 기념해 '무풍무패' 프로모션으로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구매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상당의 캐시백 또는 삼성 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에어컨 교체시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혁신 기술로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까지 해주는 삼성전자의 AI 에어컨으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